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

사상 첫 대선 사전투표 어떻게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투표소 확인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에도 투표소

4일부터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제19대 대선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천507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또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어느 곳에

서나 가능하다. 투표하러 갈 땐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소지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투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합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 회송용 봉투는 그날 투표가 마감된 뒤 사전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돼 해당 지역의 선관위로 보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희기자 glee@kwangju.co.kr·연합뉴스

2017 제19대 대선 '사전투표' 이렇게 하세요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1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1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2 투표용지를 받음	2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음 (주소라벨 부착)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
4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음	4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음

투표 시간 5월 4~5일 오전 6시~오후 6시
유의 사항 투표 안내문 확인,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 해당 기표용구 및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금지, 초등학생까지 투표소 동반 입장 가능

산들·구구단·다이아 등 아이돌

“우리도 대선 사전투표해요”

그들 비원에이피의 산들과 걸그룹 구구단, 다이아 등 아이돌 가수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 투표에 참여한다.



걸그룹 구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인 산들은 4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홍보대사들과 함께 투표한다. 홍보대사로는 산들과 함께 배우 정애리, 장나라, 진세연, 윤주상과 가수 김연우가 활동 중이다.

한다. 두 팀 모두 선거일에 예정된 일정이 있다. 구구단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선거일에 광고 관련 일정이 있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들

산들은 지난 2월 열린 비원에이피 공연에서 “남자 아이돌로는 처음 대통령선거 홍보대사가 됐다”며 “여기 계신 유권자분들은 다들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표권이 없는 어린 팬들에게는 “어른들이 투표하는 걸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했다.

신곡 ‘나랑 사귄다’로 활동 중인 다이아의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도 “선거일에 일정이 있다”며 “멤버 중 은채와 숨이는 미성년자이지만 투표소에 동행한다”고 말했다.

비원에이피와 같은 소속사 걸그룹 오마이걸도 선거일인 9일 예정된 스케줄로 인해 4일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걸그룹 드림캐처 역시 이날 사전투표소를 찾는다. 5일에는 걸그룹 구구단과 다이아가 사전 투표에 동참

/연합뉴스

전남도 전국 최초 청년 귀어가 어장 709ha 승인

고흥·무안에 김·미역 10건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 귀어가 어장 709ha를 신규 승인했다. 어촌계의 높은 장벽 탓에 주춤하고 있는 도시 청년들의 귀어를 위해 어업 기반인 양식어장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에 직면한 전남도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양식어업의 장벽을 낮춰 도시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민의 어촌 정착을 위해서는 양식어장 확보가 우선돼야 하나 기존 어업인과 어장 확보 갈등으로 외부인의 어촌 진입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고흥군과 무안군 청년 귀어인 지원 어장 10건 709ha(김 7건 589ha, 미역 3건 120ha)를 승인, 귀어를 바라는 청년들의 진입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청년 귀어가 어장을 포함한 2017~2018년 어장 승인 총 규모는 677건 2만4230ha다.

본격 영농철 농기계 임대사업 ‘인기’

전남도내 62곳 운영

지난해 7만5000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도내 62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지난해에 7만5000여 건을 빌려주는 등 이용 농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모내기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신안 14개소, 나주 6개소 등 모두 62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발작물 수확기, 파종기 등 농기계를 농가에 저렴하게 임대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기계화율을 높여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된 바 있다.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를 발작물 파종과 옮겨심기 등 기계화율이 낮은 발작물용 기종을 비롯 모두 8850여 대다.

지난해부터 여성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승용관리기, 동력이앙기, 편이장비 등 일명 ‘여성 친화형 농기계’도 보유, 임대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종별 최장 3일까지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군 조례에서 기종별로 가격을 정하거나 별도 추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정수한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승용관리기의 경우 1일(8시간) 임대료는 4만5000원, 트랙터용 콩 파종기는 1만5000원 수준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핵심 환경정책 ‘시민 건강과 안전’

환경안전·자연환경·지속가능발전 주요 추진과제 선정

광주시가 올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핵심 환경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갈수록 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폐수 및 기류 유출, 미세먼지 등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환경안전관리, 자연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우선 환경안전관리분야로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환경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활동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어린이활동 공간을 확보하자는 자정대회를 열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완충 저류시설 설치에도 나선다.

또 유기화학물질 시료채취 장비 확보, 환경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대응 매뉴얼 제작과 배포도 할 계획이다. 최근 2~3년 새 광주에서는 유독물질 유출, 물고기 폐사 등 각종 환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연환경보전 분야를 위해서는 가야제 등 저수지의 습지보전과 수질개선 등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동광주IC 폐도부지에는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한

다.

광주시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폐도 부지를 주민 친화적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위해 6월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가능 경영 CEO포럼을 지역 중견기업 30곳이 참여해 열고,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정화활동 등도 추진한다.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정화활동은 다음 달 1일 14개 기업과 21개 환경단체 회원 1천여명이 참여해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박영석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3일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새로운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기업, 행정의 함께 다양한 정책발굴과 실천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염미봉씨 선정

2차례 공모가 무산됐던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염미봉(61) 한국여성연의전과 이사가 선정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3차 공모에서 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염미봉 이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염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1년 광주여성연의전과 대표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 한

국여성연의전과 공동 대표 등을 역임했다.

광주여성재단은 신원조화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광주

시의회에 인사청문

을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공모는 지난 2월17일과 3월15일 2차례 모두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내려져 이번이 3차 공모를 진행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 화정역 1호선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oticon PEOPLE FIRST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나주혁신 빛가람 로데오 포장마차 사업주 모집 안내

◆ **사업지** : 나주시 빛가람동 26번지 상업 6블럭 로데오 거리 일원
◆ **자격** : 소자본으로 음식점 창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모집업종**
-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관련 음식점 (5개 업소)
- 가공류 : 튀김/ 오리고기 관련 음식점 (5개 업소)
- 해물류 : 해산물, 조개구이 등 관련 음식점 (5개 업소)
- 주류 : 수제맥주, 와인 등 관련 음식점 (5개 업소)
- 분식류 : 제과,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관련 음식점 (5개 업소)
- 동남아음식 : 베트남, 일본, 중국 등 관련 음식점 (5개 업소)
*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 불가
◆ **점포수** : 29점포
◆ **임대조건**
- 보증금 : 1,000만원
- 월세 : 매출에 따른 수수료 매장 or 월 고정 임대료 중 선택 가능
◆ **입점혜택**
- 인테리어 비용 최소화
- 주 2회 거리공연 (기념일 대규모 행사)
- 이간 배달주문 콜센터 운영 (18:00~22:00)
- 지속적인 광고 홍보 / TV 및 라디오 광고 예정
- 사장님용 및 고객 서비스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상의 영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유흥의 중심”
빛가람동 상업6블럭 로데오거리의
“빛가람 로데오 포차”와 함께 할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오픈 예정일 : **2017년 5월**
-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인점 문의 : **061)333-5001**
나주시 배넷1길 26-1 ING타워 101호